|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quity Market | vol.31 2024. 12. 13 |

마켓 BEAT

과연 다시 탈원전일까?



LS증권



ESG/Market
Analyst 김윤정
yunjeong.kim@ls-sec.co.kr
RA 황산해
sh.hwang@ls-sec.co.kr

다음주 주요 체크 포인트 및 관련 종목

정권 변화시 탈원전 복귀? 시장 우려 과도

- **관련종목: 두산에너빌리티, 한전KPS, 비에이치아이**
-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우호적 경제 상황에 더해 정치리스크가 더해진 시장은 탄핵을 하나의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중. 코스피 지수가 탄핵 베팅 확률과 동조화되면서 이번주 반등을 이루고 있기 때문. 한편, 12/14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음
- 탄핵 가결시 범야권의 지배력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총선 공약을 두고 비교해보면 여야간 에너지 정책상의 의견차가 뚜렷함을 알 수 있음. 이번주 범야권에서 단독 국회 통과된 '감축 예산안' 내용상 원전 관련 사업 예산 대부분이 크게 삭감된 것 역시 야당 집권시 탈원전 방향 전환에 대한 우려를 키움. 다만, 반도체, AI, 기초연구, 양자,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대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예산 역시도 대부분 감축되었음
- 탈원전 복귀 가능성과 관련, 현 정권의 적극적 스탠스는 다소 경감될 수 있겠으나 문재인 정권 당시만큼 원전을 배제하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우선 원전이 갖는 경제성(저비용발전원)과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도 원전을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음
- 정권 변화시 국내의 신규 원전 준공 계획이나 전력기본계획 상의 전력믹스 전망 변화 가능성은 있겠으나, 체코 원전 수주 등 관련산업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 선이라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그렇다면 현재의 시장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해석 가능

주간 증시 상승 주도업종 TOP3

1. 반도체(+3.3%)

No.	종목명	주간 시가총액 변화(억원)	주간 수익률(%)
1	삼성전자	131,335	4.10
2	SK하이닉스	22,568	1.79
3	한미반도체	9,082	12.63
4	SK스퀘어	4,851	4.56
5	리노공업	1,418	5.75

업종	증시 비중(%)	시총 변화 (억원)	수익률(%)			
			1W	1M	6M	1Y
반도체	22.6	170,434	3.33	1.49	-26.09	-14.13

섹터 이슈: 여당 내 탄핵 찬성 입장이 12일 대통령 담화 이후 확산. 탄핵 가능성이 상승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낙폭 과대 인식 존재했던 반도체 업종 상승. 엔비디아와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반등도 긍정적

종목 이슈: 삼성전자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주가와 커플링 되는 모습으로 변동성. SK스퀘어는 11월말 자회사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제고계획 발표에 따른 배당 및 자사주매입 수혜가 예상되며 하단 지지

2. IT가전(+3.5%)

No.	종목명	주간 시가총액 변화(억원)	주간 수익률(%)
1	LG에너지솔루션	52,650	5.89
2	에코프로비엠	5,868	4.65
3	엘앤에프	5,263	15.23
4	LG전자	2,946	2.09
5	삼성SDI	2,407	1.39

업종	증시 비중(%)	시총 변화 (억원)	수익률(%)			
			1W	1M	6M	1Y
IT가전	7.25	72,222	3.46	-6.07	-25.4	-33.54

섹터 이슈: 테슬라가 FSD 수혜와 사이버트럭의 중국 인증 획득 소식에 연일 신고가를 기록. 국내 2차전지 업종에도 온기 확산되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엘엔에프 등은 12일 장 마감 직전 급등

종목 이슈: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테슬라의 EV,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기대감 강조하며 LG엔솔, 에코프로비엠 등 밸류체인 강세. LG전자는 한달 남은 CES 2025 관련 소식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기대감 상승

3. 조선(+6.3%)

No.	종목명	주간 시가총액 변화(억원)	주간 수익률(%)
1	HD현대중공업	18,198	9.65
2	HD한국조선해양	11,182	8.14
3	HD현대미포	5,911	12.21
4	HD현대마린솔루션	4,712	8.36
5	삼성중공업	2,024	2.12

업종	증시 비중(%)	시총 변화 (억원)	수익률(%)			
			1W	1M	6M	1Y
조선	3.11	46,211	6.26	4.57	36.42	5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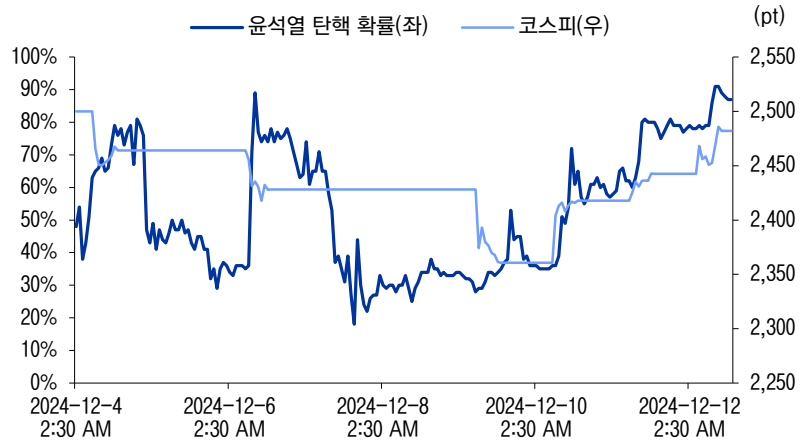
섹터 이슈: 기관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 출현. 증시 반등세의 주도주로 재차 등장하는 모습.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영향. 다만 외인 수급 회복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음

종목 이슈: HD현대중공업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관련 사법 리스크가 해소. 치안 문제로 중지됐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재개 소식은 삼성중공업(8척), HD현대(9척) 주가 반등에 기여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2차 탄핵안 표결(12.14) 앞둔 증시, 야당 정책 방향을 찾아서

탄핵 베팅과 코스피 지수의 동조화



22대 총선 공약 당시 여-야 대립 분야: 에너지, 금융 세제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 적극적 소형원전(SMR) 투자로 원자력 경쟁력 확보. 재생에너지 전환 병행	•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 원자력 제외**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3배 확대
가상 자산	•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 투자자 보호 위한 2단계 입법 추진 등 안전한 투자여건 조성	• 가상자산 현물 ETF를 ISA 편입상품 허용해 비과세 혜택 대폭 강화 •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
인프라 투자	•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급행열차 도입 + 재개발/건축 규제 완화	• 도시철도 지하화, 경기 광역철도망 연결 +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증시 정책	• ISA 지원 강화, 금투세 폐지 • 상속세 관련 유산취득세 도입 등	• 금융투자소득세 존속 • 상속세 완화 관련 부분적 동의
외교전략	•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	• 군사긴장 조성 중단
민생	• 재형저축 재도입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 교통비 절감 패키지 • 전세사기 피해 先구제

자료: 각 정당 총선공약집,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야당측 '25년 미래산업 R&D 관련 예산 대폭 삭감안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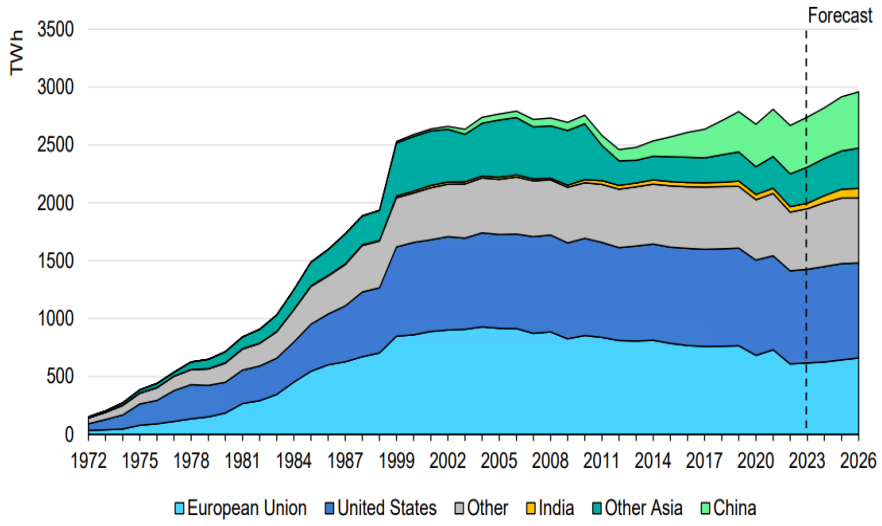


원자력: 과연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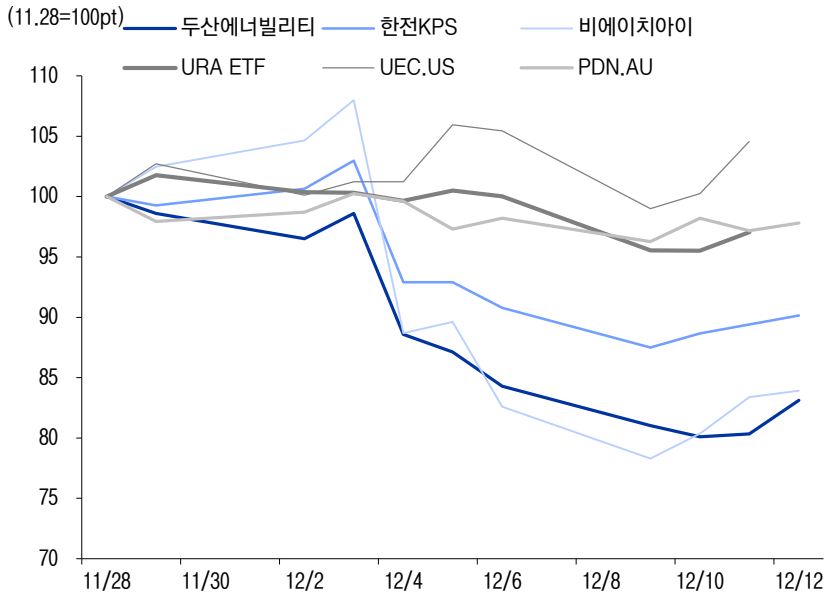
● **원자력: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 국면에서 AI발 전력 수요 감당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에너지원**

- 내년도 예산에서 원전 관련 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정권 변화시 에너지 정책에 있어 원전의 스탠스가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심리 위축. 계엄령 이후 해외 원전 기업 대비 큰 폭으로 하회하는 국내 원전주 주가수익률
- 다만, 글로벌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과 별개로, AI 등 산업 구조 변화와 첨단 산업 발달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솔루션이 될만한 에너지원은 화석연료, 천연가스, 원전 정도에 불과. 그 중 원자력은 저비용의 무탄소 전원(CFE)으로. 미국, 유럽 모두 에너지 플랜에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

주요국 원자력 수요 반등 기조



계엄령 이후 국내외 원전주 온도차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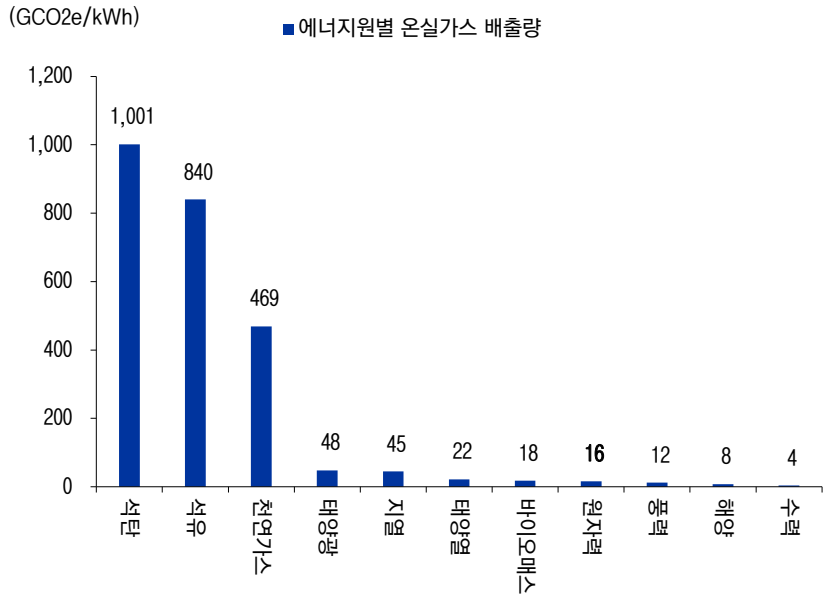
자료: IEA,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친원전 트렌드 역행은 어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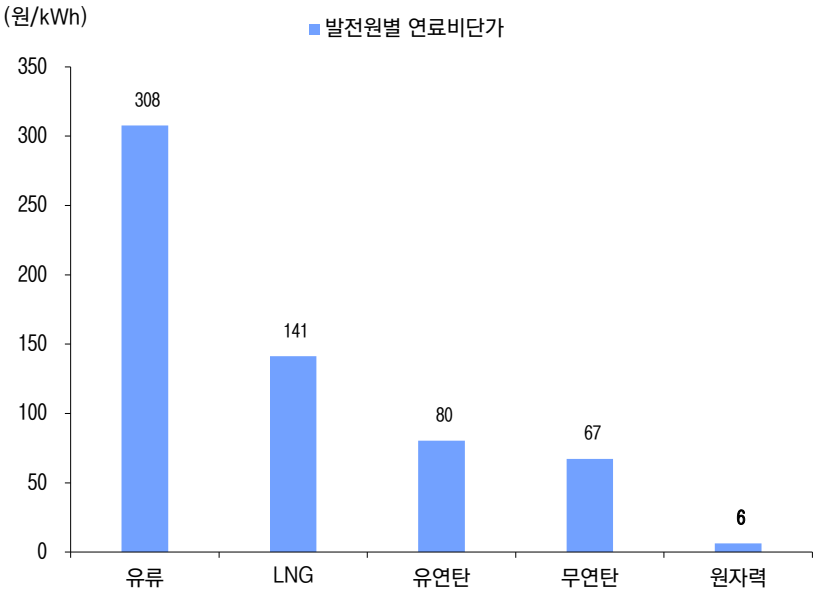
● 저비용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해외에서도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서 원전을 조건부 인정해왔음

- 원전은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측면에서 합리적인 에너지원. 재생에너지원에 견줄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으며, 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 단가 대비 현저히 낮은 전력 생산 비용. 전력가격 인상 가능성도 불투명해진 현재 다시금 한국전력 적자 문제가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전을 에너지 정책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 해외에서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로 탈원전을 추진해왔던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 수단으로 다시금 원전을 활용. 당장 일본부터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중단했던 원전을 재가동에 나서는 추세
- 2022년 EU 집행위는 원전 투자를 방사성 폐기물 처리 솔루션 보유 조건부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한다는 결정을 담은 EU Green Taxonomy 확정
- 정권 변화시 원전 적극 활용 방향은 흔들릴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및 경제성 확보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부족한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문 정권 당시의 탈원전 기조로 돌아가는 행보는 어려울 것. 신규원전 4기(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준공 계획이나 전력믹스 전망치 등은 조정될 여지가 있으나, 체코 원전 수주 등 관련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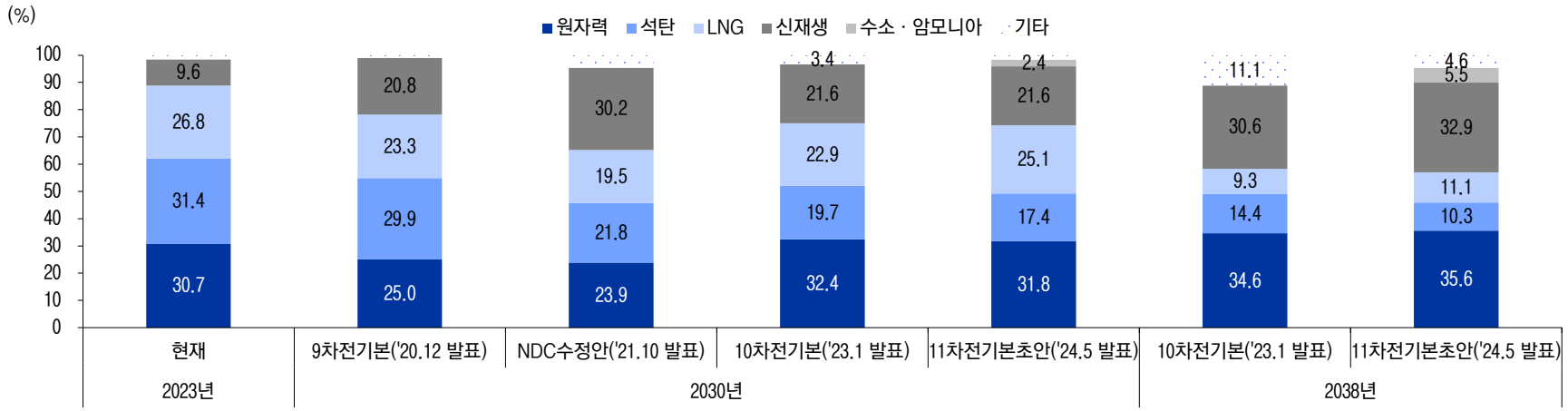
발전원별 연료비단가*



참고: 2024년 12월 기준
자료: IPCC, EPSIS, LS증권 리서치센터

당장은 원전만큼의 에너지 대안이 없다

제11차 전기본 계획안('24.5월 발표)까지의 국가 전력믹스 전망치 변화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서의 원자력발전 인정 기준

구분	EU 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고저항성 핵연료	-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 (신규건설) 고저항성핵연료 적용 - (계속운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
최적가용기법 (BAT)	- 신규건설 시 최적가용기술 적용	- 신규건설 시 최신기술수준 적용*
온실가스	- 온실가스 100g CO2eq./kWh 이내 배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 보유	
인정기한	- (신규건설)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	
	- (계속운전) 2040년까지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	- (계속운전) 2045년까지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
연구개발활동	-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연구·개발·실증·적용	-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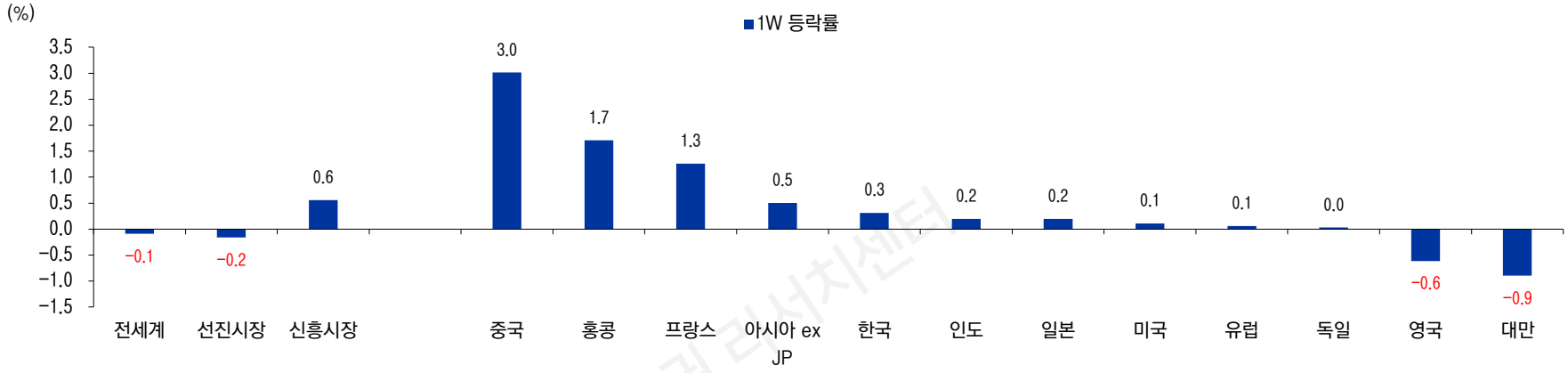
참고: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LS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한국 증시 Monit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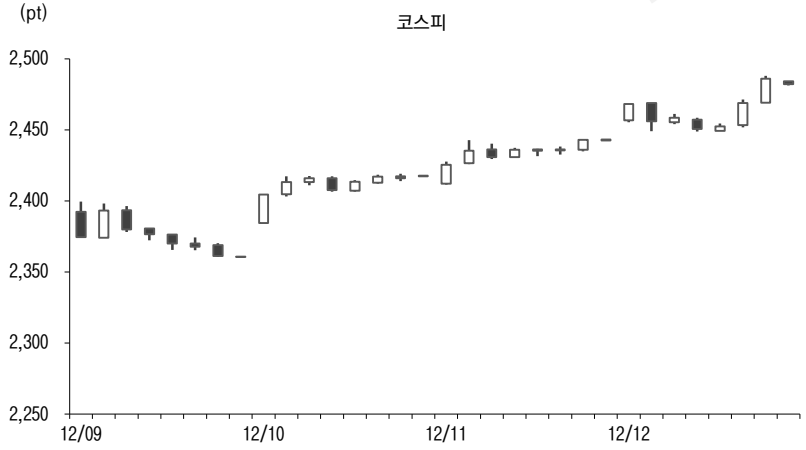
주간 증시 동향

Weekly Equity Monitor – 한국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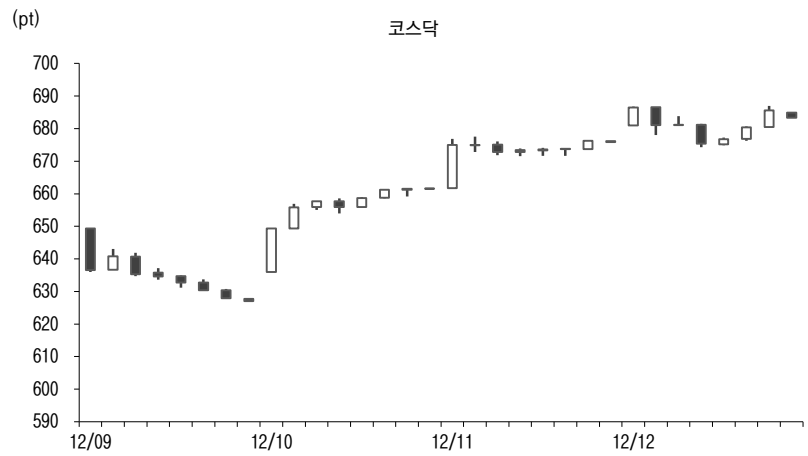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 주간 등락률



주간 코스피 지수



주간 코스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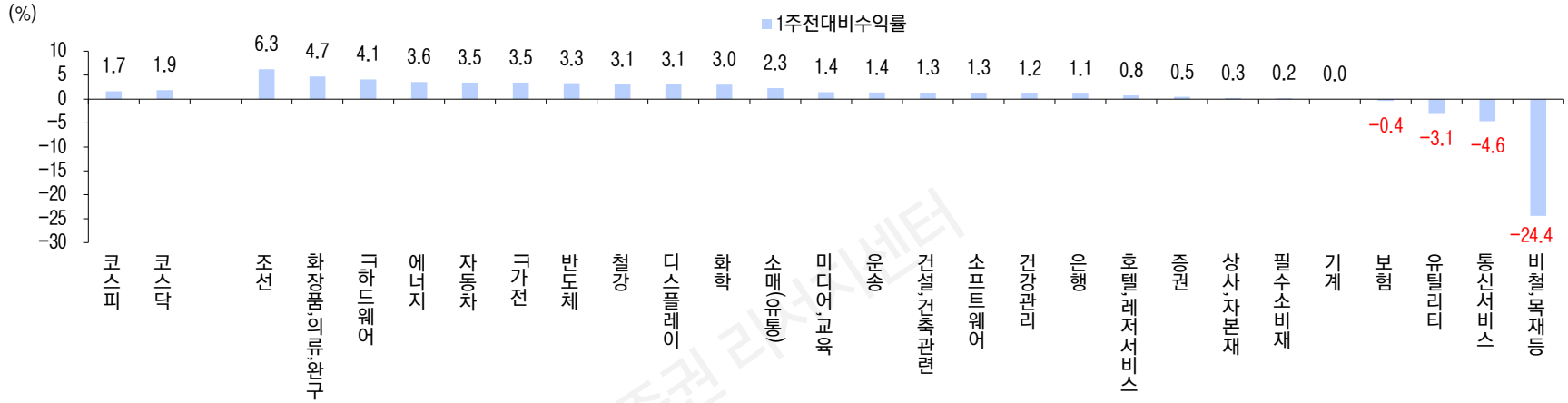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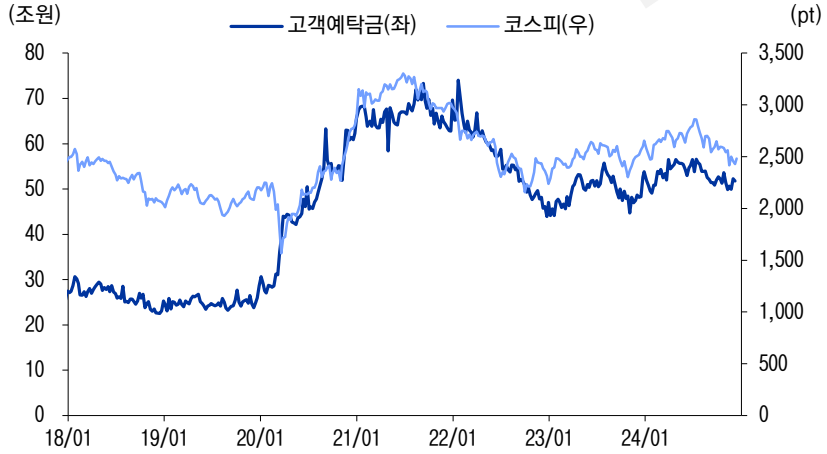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Weekly Equity Monitor – 한국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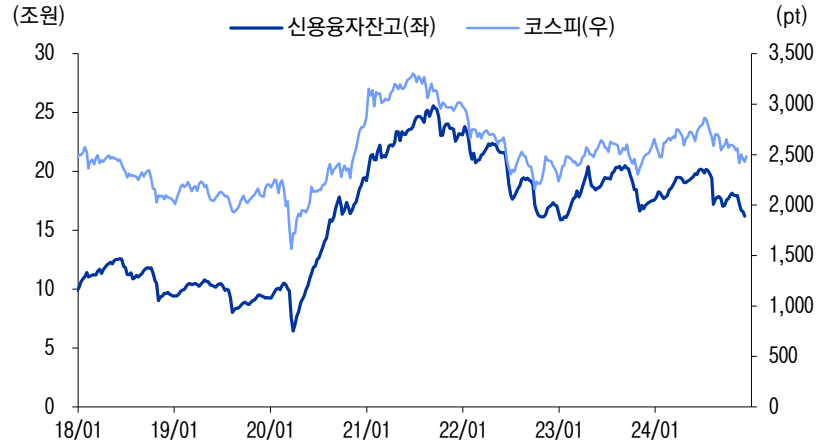
업종별 주간 등락률



고객 예탁금 추이



신용융자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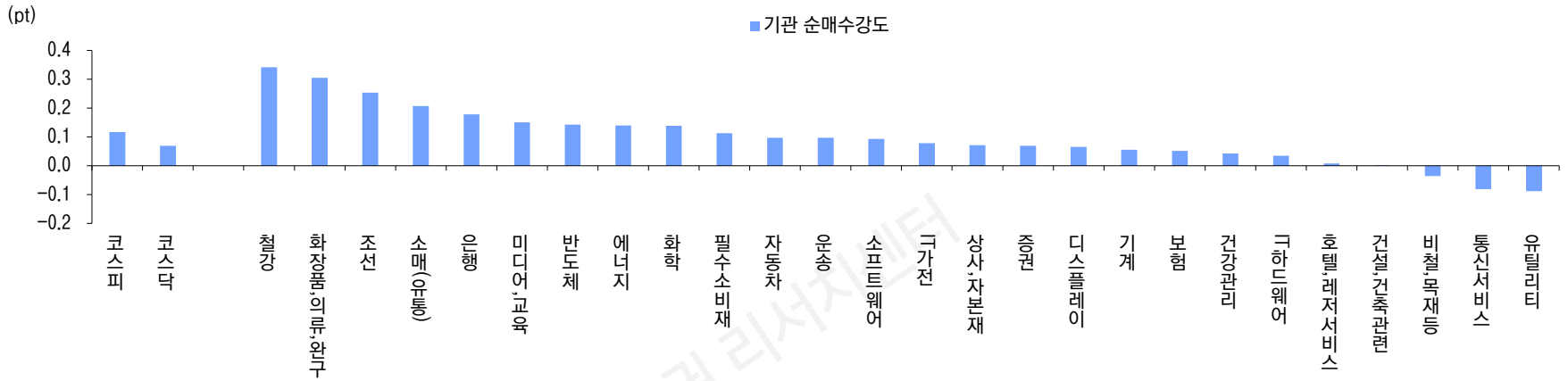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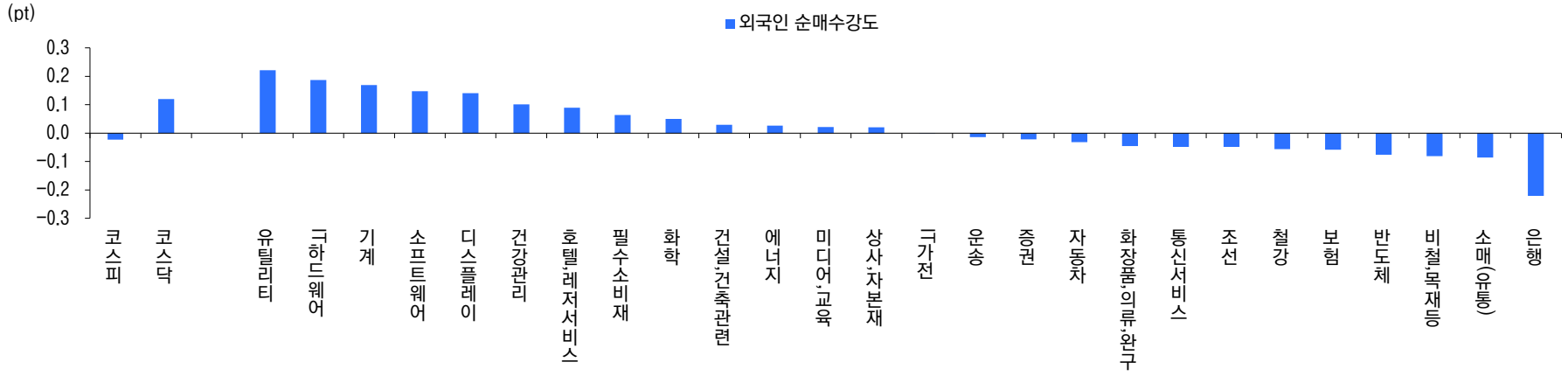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Weekly Equity Monitor – 한국 주식시장

업종별 기관 순매수강도



업종별 외국인 순매수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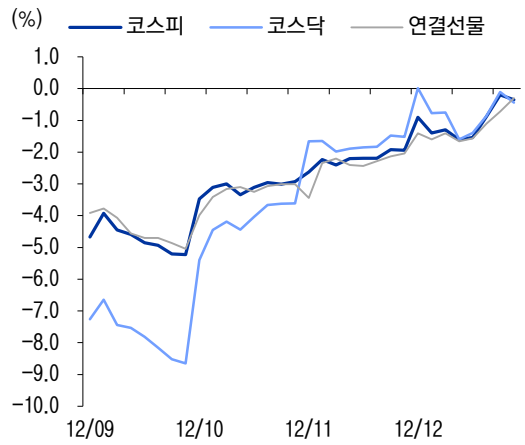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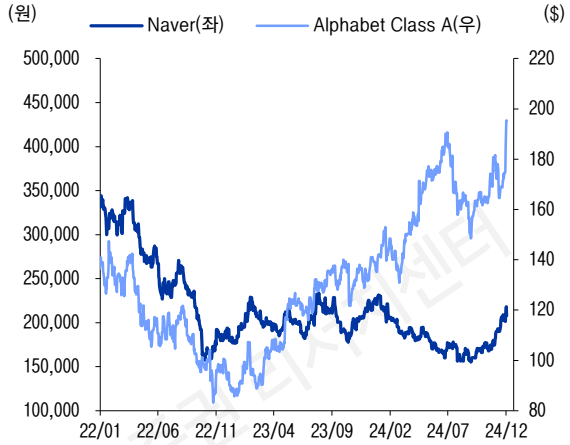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LS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Equity Monitor – 업종별 국내외 주요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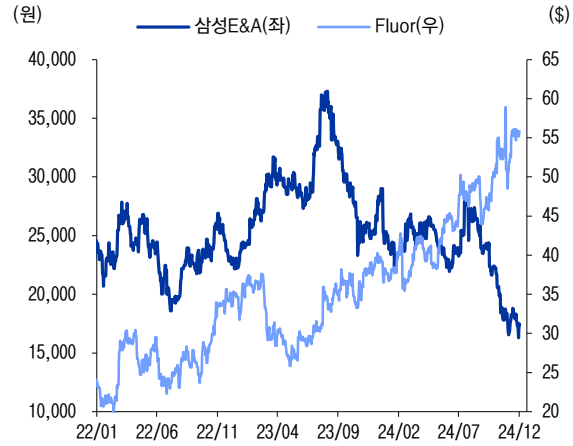
주간 종합지수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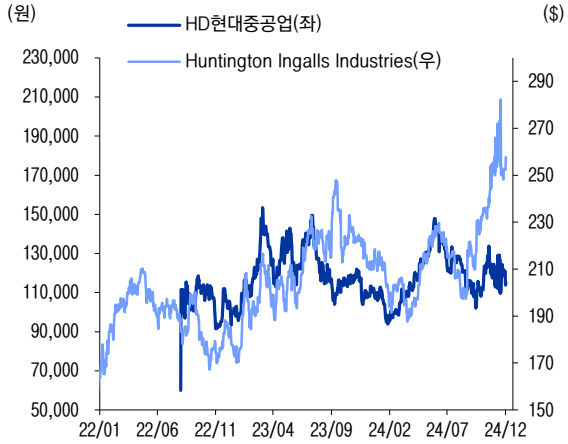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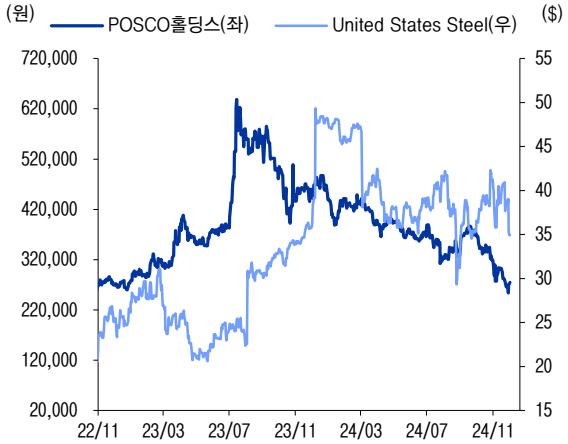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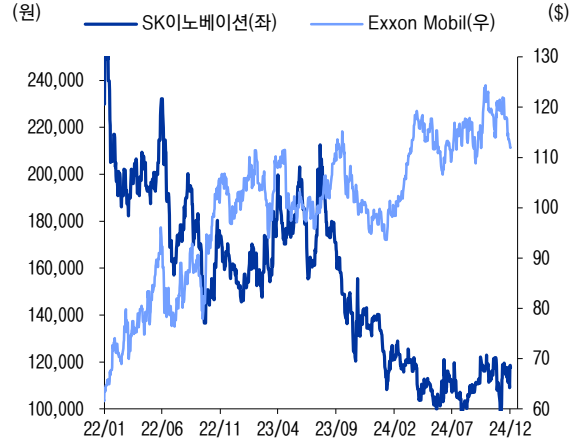
중공업



철강/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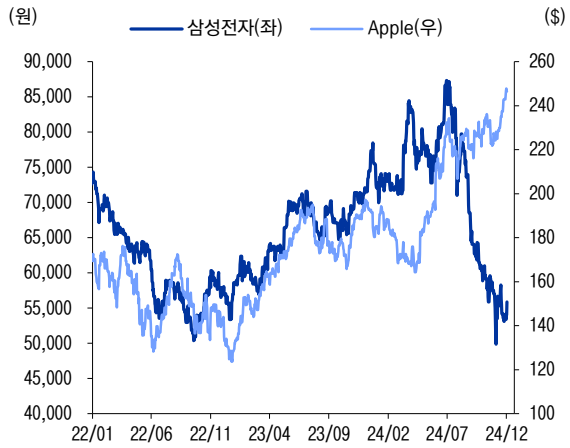
에너지/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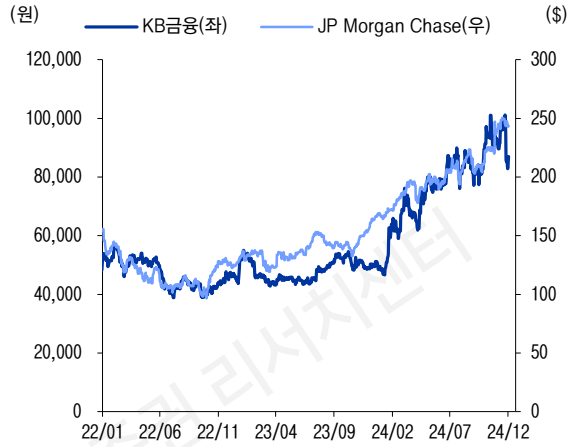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Equity Monitor – 업종별 국내외 주요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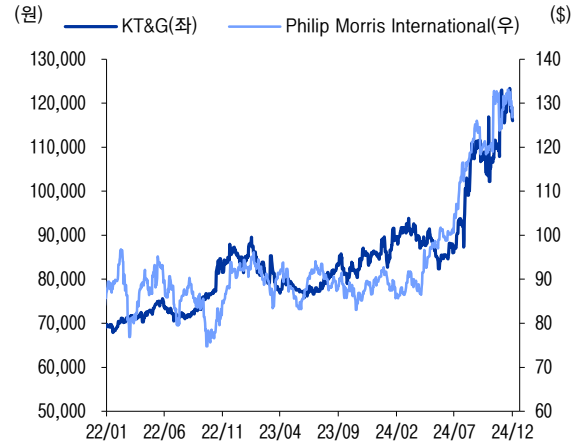
정보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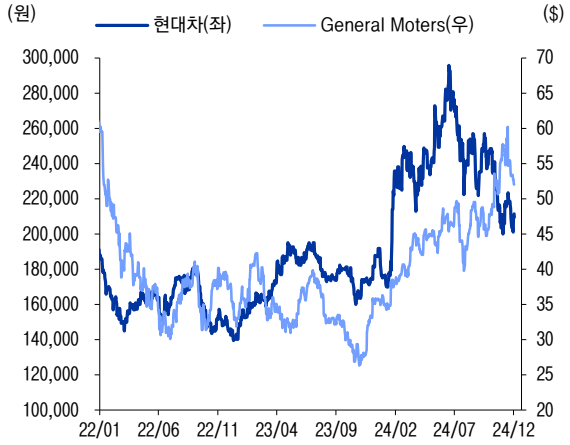
금융



생활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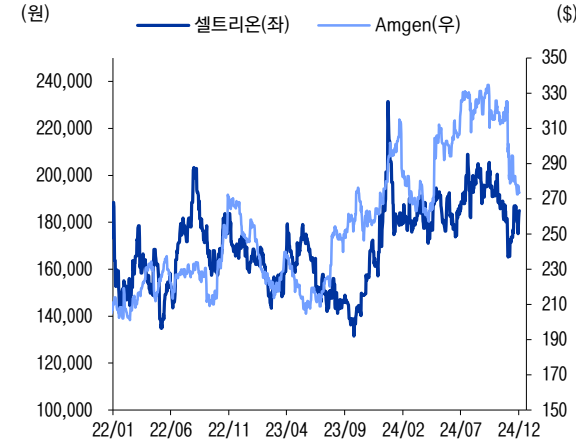
경기소비재



산업재



헬스케어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윤정, 황산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